

광고의 자유와 선택!

2024 한국광고주대회 개최

한국광고주협회가 10월 24일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대한민국 광고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2024 한국광고주대회를 개최했다. '광고의 자유와 선택'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광고주·언론사·광고회사·학계 등 각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후원

SBS

SBS M
Marketing & Com

회
ce 2024

SBS M&C

한국광고주협회
Annual Conference 2024

SBS



세미나 개최사를 하는 노승만 광고주협회 부회장

[1부] 대회 기념 특별세미나

오후 2시부터 개최된 ‘광고주대회 기념 특별세미나’는 올해의 마케터상 수상자들과 광고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섰다. 자리가 부족해 추가 좌석을 배치할만큼 시작 전부터 이번 세미나는 열기가 뜨거웠다.

노승만 광고주협회 부회장은 세미나 개최사를 통해 “올해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많은 기업이 마케팅 예산을 줄였다”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과 광고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 부회장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에게 통찰을 더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 기념 특별세미나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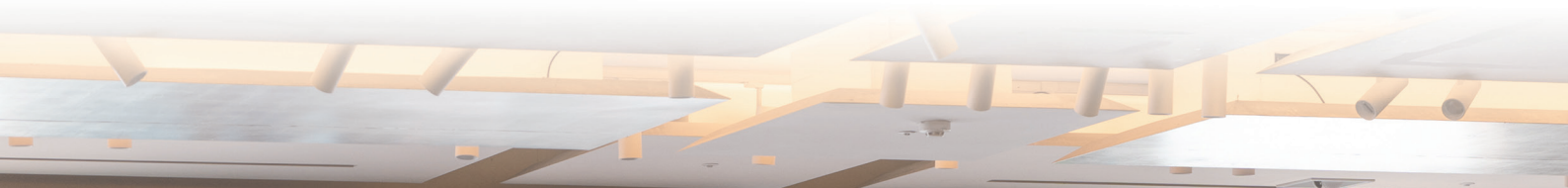
1주제는 올해의 마케터상을 수상한 기업 중 2개사가 <성공적인 브랜딩을 위한 전략과 사례>를 주제로 특별 강연(Prize-Winning Session)을 진행했다.

먼저 삼성물산 정태진 그룹장은 ‘영원한 아기 판다 푸바오 IP 마케팅’을 주제로 강연했다. 올해 국내에 ‘푸바오’ 열풍을 불러왔던 에버랜드 마케팅의 전략과 숨겨진 이야기를 밝혔다.



세미나 1주제를 발표하는 정태진 삼성물산 그룹장(좌) / 김연정 파리바게뜨 마케팅 본부장(상무/우)

이어 파리바게뜨 김연정 마케팅본부장(상무)은 ‘파리바게뜨 X 파리 생제르맹(PSG) 글로벌 파트너십’ 발표가 있었다. 파리 생제르맹 홈구장을 한글로 빛낸 ‘안녕 파리바게뜨’ 광고와 선수들 유니폼 등 이색 마케팅을 소개했다.





세미나 2주제를 발표하는 제갈윤승 인피니트씨 대표
 2주제는 제갈윤승 인피니트씨 대표가 <프로그래매틱 DOOH: 옥외광고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프로그래매틱 디지털 옥외광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진단했다. 인피니트씨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pDOOH 기업 '하이브스택'의 국내 독점 리셀러다.



세미나 3주제를 발표하는 노승우 대흥기획 미디어부문장
 3주제는 노승우 대흥기획 미디어부문장이 <팬데믹 이후 변한 것 그리고 변하지 않은 것, 2024 미디어 트렌드>를 주제로 광고주가 주목해야 할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광고기획 전략을 설명했다.





[2부] 광고주의 밤

KAA어워즈와 만찬이 열리는 광고주의 밤은 리셉션부터 참석자들로 호텔 로비가 가득 찼다. 400여명의 업계 임직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올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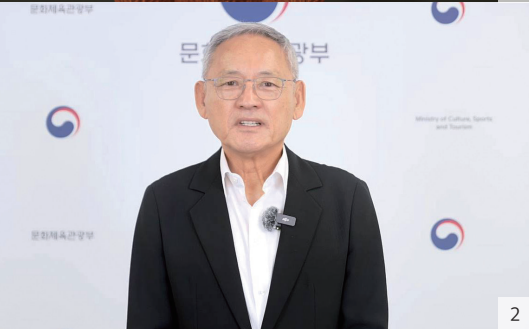
Annual Conference 2024

한국광고주대회

2024년 10월 24일 (목) 웨스틴 조선 호텔 그랜드볼룸 & 오키드룸



(왼쪽부터) 홍경선 삼성전자 부사장, 하석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이영규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노승만 광고주협회 부회장, 방문신 SBS 사장, 최선욱 광고주협회 회장



1. 광고주의 밤 개최사를 하는 최선목 광고주협회 회장
2.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축사(영상)
3. 이영규 광고주협회 운영위원장 경과보고

개회 & 경과보고

‘광고주의 밤’ 만찬 행사는 비즐무용단의 오프닝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비즐무용단은 광고인의 열정과 화합을 북 공연과 전통무용으로 구성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이어 최선목 광고주협회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6조 원을 돌파한 광고시장의 놀라운 성과는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힘이 됐다. 한국 광고산업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광고주협회는 AI,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이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무한한 신뢰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신뢰성과 윤리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며 “2024 한국광고주대회가 광고계의 미래를 고민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상 축사가 있었다. 유 장관은 “문체부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광고인의 창의성이 빛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회를 통해 광고인들이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경과보고는 이영규 광고주협회 운영위원장(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이 맡아 이번 2024 한국광고주대회의 개최 의의와 KAA어워즈 선정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KAA Awards 시상식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마케터상

계속해서 한국광고주대회 백미인 KAA Awards(어워즈) 시상식이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마케터상'부터 시상을 시작했다. 하석 광고주협회 소비자위원장(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이 시상을 맡아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영원한 아기 판다 푸바오 IP 마케팅' △파리바게뜨 마케팅본부 PSG TFT '파리바게뜨 X 파리 생제르맹(PSG)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십' △롯데웰푸드 마케팅본부 IMC팀 '2024 가나 브랜드 팝업스토어' △삼성생명 커뮤니케이션팀 브랜드광고P '비추미 건강원 팝업스토어'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의 마케터상 브랜드 부문을 수상한 배성우 롯데웰푸드 마케팅본부장은 “같이 일한 IMC 팀과 가나 마케팅팀에게 고맙고 축하한다 말을 전하고 싶다”며 “내년 2월이면 50주년이 되는 가나초콜릿을 새로운 캠페인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사랑받는 브랜드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의 기쁨을 전했다.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신문기획상

올해의 신문기획상은 △조선일보 '12대 88의 사회를 넘자' △동아일보 '韓 첨단기술 경쟁력 위협하는 기술 유출 실태' △한국경제신문 '징벌적 상속세도의 뒷' △

헤럴드경제 '그 회사, 한국 기업이었다면?' 등 총 4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은 이태길 광고주협회 경제홍보위원장(한화 사장)이 맡았다.

신창훈 헤럴드경제 편집국장은 “기업들이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혁신해 성장해 나갈 때,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들을 찾고 개선하며 제도적인 대안들을 독자들에게 제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프로그램상

올해의 프로그램상은 △tvN '선재 업고 튀어'(드라마) △MBC '나 혼자 산다'(예능) △JTBC '최강야구'(예능)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시사교양 부문) △KBS 'KBS 상속세 개편 연속 보도'(기획보도) 등 총 5편이 수상했다. 시상은 홍경선 광고주협회 광고위원장(삼성전자 부사장)이 담당했다.

소형석 SBS PD는 “꼬꼬무는 거대한 역사 스토리를 다룰 때도 있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다. 이런 사람들의 세계관, 행동 양식이 쌓이면 새로운 하나의 역사가 된다. 그런 노력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취지로 생각하며 감사히 받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올해의 마케터상

1. 하석 광고주협회 소비자위원장과 정태진 삼성물산 그룹장
2. 김연정 파리바게뜨 마케팅본부장
3. 배성우 롯데웰푸드 본부장의 수상소감
4. 삼성생명 커뮤니케이션팀 브랜드광고P



올해의 신문기획상



1. 이태길 경제홍보위원장(왼쪽부터 네번째)과 조선일보 선우정 편집국장 및 기자들 2. 동아일보 이승현 편집국장 및 기자들
3. 한국경제 이심기 편집국장 및 기자들 4. 헤럴드경제 신창훈 편집국장 및 기자들

올해의 공로상: 박정규 동서식품 전 부사장

올해의 공로상은 박정규 동서식품 전 부사장이 선정됐다. 박 부사장은 13년간 광고주협회 운영위원장, 광고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광고주의 권익보호와 건강한 미디어·합리적인 마케팅 환경 조성에 힘 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정규 전 부사장은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동서식품에서 40년을 주로 마케팅을 했

고 광고주협회서도 20년을 활동했다”며 “오늘 이 상이 특별한 공로가 있기보다 오래 (활동)해서 준 상으로 여기며 감사히 받겠다”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앞서 후배들이 상 받는 모습을 보며 감회에 젖기도 했는데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 불려, 상을 준 광고주들과 협회에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올해의 프로그램상

1. 홍경선 광고주협회 광고위원장(왼쪽부터 세번째)과 본팩토리 임직원
2. 허항 MBC PD의 수상소감
3. 장시원 스튜디오 C1 대표
4. SBS 소형석 PD & 이동원 PD
5. KBS 박찬 기자, 김진화 기자, 황현규 기자



공로상을 수상한 박정규 동서식품 전 부사장

만찬 및 환영사

광고주의 밤 만찬 행사는 SBS와 SBS M&C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방문신 SBS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SBS는 20세에서부터 49세까지의 시청자를 상대로 한 시청률에서 8년 연속 1위를 하고 있고, 지금도 1등"이라며 "정확성과 객관성에 기반한 신뢰성 있는 뉴스를 만든다. 시청률보다 더 중요한 신뢰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방문신 SBS 사장의 환영사와 만찬 전경

이어 "미디어도 힘들었고, 광고주 여러분도 힘드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서로 마음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오늘 자리가 100%의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가 두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광고주의 밤 축하공연 한국남성합창단 중창팀(위) / 가수 권은비(아래)